

현대무용단  
ZOOM  
Since 1988 Modern Dance Group "Zoom"

# DANCE MUSICAL



현대무용단 주-□

천국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2003. 12. 16(화) 1회/5:00 2회/8:00 • 을숙도 문화회관

주최 • 현대무용단 주-□  
후원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현대무용단 주-□ 후원회  
문의 • 051)620.4964, 011.597.3556, 011.865.8739

## ●●●●● 작가의 이야기

이 작품은 1995년 겨울, 나의 처녀작인 <죽이지도 않은 자에 대한 책임(연출 최향운/ 연당소극장)> 공연을 보면서 썼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산에서 남자배우가 7명이나 나오는 작품은 절대 공연하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다. 사실이 그러했다. 남자배우는 워낙 없으니까. 그 후 1999년에 가서야 부산시립 극단에서 초연(연출 정순지/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을 했다. 그때부터 내겐 꿈이 하나 생겼다. 매년 겨울마다 이 작품을 공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연말마다 이 작품을 위해서 배우들이 모이고 스태프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고 모여서 열번 스무번 백번쯤 공연하고 나면 이 작품이 얼마나 달라질까, 얼마나 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이 작품을 지나갔을까 ..... 상상했다. 정말 멋진 꿈이었다.

두 번째 공연(연출 남현주/ 경성대 정보관 소극장)은 작년 2002년 겨울에 있었다. 이 작품에 안무로 강희정 선생이 참가했다. 그녀는 내년에 <천국으로~>를 무용으로 공연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리고 2003년 12월, <천국으로 배달해 드립니다>는 2가지 버전으로 관객을 찾아간다. 하나는 현대 무용단 춤의 댄스뮤지컬이라는 장르로 또 하나는 극단 P.G. 신우의 연극(연출 최향운/ 가마골소극장)이라는 장르로.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내가 남몰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항상 그렇듯 모든 판단은 관객들의 몫이며, 우리의 모든 열정과 설레임도 관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 줄거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지하 창고.

술주정뱅이(단장), 병어리(꼬리), 곰추(안소니), 폐병쟁이(제비), 고아 출신의 상처받은 영혼(나비) 등 힘겨운 삶을 사는 다섯 명이 아무 대책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천국서커스단의 단원들. 대부분 단원들은 노숙자로, 일일 노무자로 제 갈길을 찾아 떠나버렸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꿈이 있다. 봄이 되면 흩어졌던 단원들과 전당포에 맡긴 소품, 동물들을 찾아 더 멋진 공연을 하리라 소망하며 봄을 기다리는 것이다.

천국서커스단이 지하창고에 숨어든 지 한달이 되는 날. 유괴범 2명이 납치한 소년을 이곳으로 데려오면서 극은 고조된다. 소년의 아버지에게 원한이 있는 유괴범들은 납치한 소년을 지하창고에 묶어두고 밖에서 문을 잠근 채 가버린다. 소년과 함께 지하창고에 갇힌 신세가 된 천국서커스 단원들은 겁에 질린 소년을 즐겁게 해주려고 여러가지 작은 공연을 펼쳐보이고 소년과 단원들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하나가 되어 간다.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하고 위로하며 기뻐하지만 병이 악화되어 죽어 가는 제비로 인해 다시 절망에 빠진다. 제비를 살리기 위해 꼬리가 밖으로 뻗어나가고 들지 못하는 꼬리는 그만 차에 치어 죽게 된다. 제비 역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비가 내민 손을 잡으며 꼬리처럼 뼈에로가 되어 살고 싶다고 한다.

## ●●●●● 각색 장면

프롤로그 - 망해버린 천국서커스단 단원들이 겨울을 지낼 곳을 찾아 나선다.

1. 지하 창고에서의 일상 - 꼬리와 나비의 그림 그리기, 술취한 단장의 회상장면
2. 유괴범들의 침입 - 소년과 유괴범의 실랑이, 유괴범들의 회상장면
3. 소년과 천국서커스단 사람들과의 만남 - 작은 공연
4. 꼬리의 환상 - 병어리, 귀머거리 꼬리의 환상 속에는 항상 큰 나비가 나온다.
5. 제비와 꼬리의 죽음 - 슬퍼하는 사람들.
6. 나비의 환상 - 꼬리를 만나는 나비

에필로그 - 새로운 꼬리가 된 소년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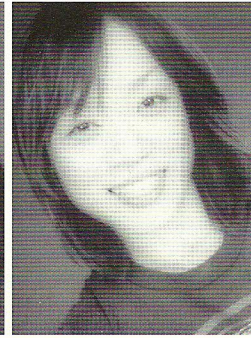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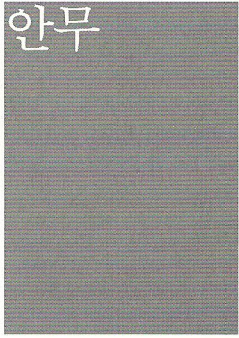
## ●●●●● 안무자의도

순수 동인 무용단체인 현대무용단 주-모이 '댄스 뮤지컬'이라는 생소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한데는 순수 무용 창작 공연이 대중적인 관객들과 소통하기가 쉽지않다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오랜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변화를 위한 시도이며 그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였다.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마냥 쉽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드는것은 아닐것이다. 그렇다면, 춤의 관념적이고 주관적인 표현들을 무리없이 객관화 할수있는 형태를 고민하였고 총체적이 장르의 결합체인 뮤지컬이 가진 장점들에서 그 가능성을 찾기로 하였다.우리가 시도하는 이실험들은 춤, 노래, 연기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뮤지컬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오는것은 분명 아니다. 우리는 우선 무용화시킬 수 있는 대본을 가지고 그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미지들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여기에 여러 안무자들이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객관적인 공감대를 가질수있도록 조율하는 방식으로 공동작업을 하였다. 이는 이전의 각 안무자들의 주관적인 이미지의 나열인 공연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작업 방식이어서 나름의 시행착오와 고민의 흔적들은 남겼고 앞으로의 작업에 좋은 공부가 되었다.

실제로 무용작품이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총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작업방식의 실험은 온전히 새로운것은 아닐수 있다.그러나 아직 대안적 방식이 검증되어있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는 결과물보다 그 과정이 더욱 의미가 있다. 중요한것은 변화를 위한 시작이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 현대 무용단 주-모이 고여있지않고 끊임없는 진화를 꿈꿀수 있다는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정들을 같이 견디어준 주-모식구들과 한은주 교수님, 무용수, 스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대본을 선택내어준 작가 이훈주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보낸다.

안무



**곽선영**  
(경성대 겸임교수,  
현대무용단 주-무 단원)

**강희정**  
(경성대 강사,  
현대무용단 주-무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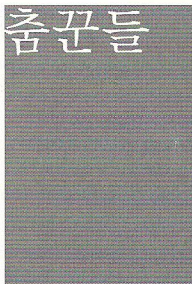
**문선애**  
(현대무용단 주-무 부회장)

대본



**이훈주** (극작가)

춤꾼들



**김민주**  
(현대무용단 주-무 회장)

**민태희**  
(현대무용단 주-무 단원)

**이정임**  
(현대무용단 주-무 단원)



**이선희**  
(현대무용단 주-무 단원)

**안정민**  
(현대무용단 주-무 단원)

**이동용**  
(현대무용단 주-무 단원)

**이지연**  
(현대무용단 주-무 단원)